

8 특집

“학사제도 개선 높게 평가... 문화 행사 유치도 성공적”

김윤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서울캠 공약점검: 'KHUBE'

#서울캠 총학 'KHUBE'(정: 조규영(미디어학 2021), 부: 서인하(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0))는 선거에 출마하며 ▲대학 영어 면제 기준 조정 ▲대운동장 잔디화 추진 ▲대동제 '마스터피스' 상표권 등록 ▲서울과 국제 공동 화칙 개정 및 공식 협의회 설립 ▲총장·총선 후보자 간담회 개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기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캠 총학을 만나 공약을 얼마만큼 이행했고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아래는 서울캠 총학 'KHUBE'와 의 일문일답.

Q1.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떤가?

51개의 공약을 약속했다. 일반 학생이 본부에 요구하기 어려운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자 했다. 임기 시작 전 공약을 짤 때도 학교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 결과적으로 임기 이후 51개 공약 중에서 총학생회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이행 32개, 이행 중 13개, 수정 이행 2개, 미이행이 4개다. 이행 중인 13개 공약 중에서 7개는 임기 말까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행 완료가 된다. 이렇게 대부분 안건이 진행됐고, 쉽지 않아 보이는 안건도 이행된 것이 꽤 있어 개인적으로 뿌듯하다. 미이행이거나 이행 중인 공약도 남은 두 달 동안 마무리하기 위해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

Q2. 이행된 공약 중에서 총학이 스스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공약은 무엇인가?

공약을 낼 때 가장 주안점을 맞췄던 부분은 학사다. 군 e-러닝이나 조기졸업 요건 완화를 시행했고, 대학 영어 면제 기준도 조정 합의안이 만들어져 최종 심의만 기다리고 있다. 비대면 강의 확대도 학교 본부에 요구했고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다전공 승인 기준 공개도 했다. 학사 및 학업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교육 환경 개선에도 신경 썼다. 교내 와이파이 점검 및 개선, 강의 평가 내 인권 감수성 권리 침해 조항 등이 그 예다.

Q3. 우리 학교 첫 이공계열 총장



서울캠 총학생회 'KHUBE' 조규영 총학생회장(왼쪽)과 서인하 부총학생회장(오른쪽)

(사진=대학주보 DB)

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이공계열에 입각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직 좀 선부르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임기를 같이했기 때문에 총장과 소통할 기회가 더 많았다. 반기마다 진행되는 총장 콘서트를 보면 학생과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다고 느껴진다. 다만 취임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 학교의 운영 방향을 변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크게 느끼지 못하겠다.

Q4. 공약에서 언급한 대학 본부의 핫라인은 무엇이고,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인 것은?

총학생회는 보통 학생회관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본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본관이나 청운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 빠른 소통이 쉽지 않다. 학생지원센터를 학생회관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임기 시작 후 총학생회 담당 교직원 포함 학생지원센터장, 미래혁신단장이 모두 포함된 SNS 연락망을 구축했다. 그 연락망으로 학생회 관련 안건을 요청했고,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Q5. 무전공 제도 도입 관련해서 총학은 어떤 계획인가?

무전공 제도 확대와 관련해 지은림 학무부총장과 여러 차례 면담했다. 무전공 제도와 관련해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기존 학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원한다고 의견을 제시

했다. 자율전공학부 신입생 새터나 공간 문제는 내년에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라 올해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다. 자율전공학부 학생이 사용하는 단과대 건물 명칭이 '구 한의대'에서 바뀌지 않는 문제에 접근했다.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명칭 변경을 하는 등, 자율전공학부 정체성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중이다

Q6. 학생 수업권 침해 사례에 총학생회는 어떻게 대응했나?

총학 차원에서 1, 2학기 모두 정정 기간이 끝나면 철회 기간까지 수강 신청 불편 사항 신고 창구를 운영했다. 신고 창구로 접수된 민원은 일괄적으로 교무처에 전달했고 처리 요청을 항상 드렸다. 하지만 일방적 폐강 사례 신고는 접수된 건이 없었다. 해당 사례는 대부분 학생이 단과대 행정실에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Q7. 건물 명칭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

신임 총장께 대면으로 말씀을 많이 드린 사안이다. 총장님도 문제에 공감했다. 1학기 때부터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다고 해주셨는데 진척이 없다. 이후 자율전공학부의 소통 간담회 안건으로 상정이 돼 다시 요청을 드렸다. 이후 총학생회 주관으로 건물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도 했다. 설문조사가 포함된 해당 안건을 유관부서에 넘긴 상태다.

구한의대뿐만 아니라 구이과대도 동관, 서관으로 나뉘어 의미 없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도에도 뜨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한 점도 크다. 이 부분은 2학기 소통 간담회를 기점으로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학교에 요청할 생각이다.

Q8. 두 번의 축제를 진행하면서 만족스러웠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예를 들면 무대를 운영할 때 대포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이 관객석 내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반입 금지 물품으로 설정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프리존을 없앴다. 다음 해에는 친환경 부스를 전체적으로 적용해 일회용품 쓰레기를 확실히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Q9. 일부 학생회가 공금 관리를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과 학생회까지 모두 법인 계좌를 권고하고 싶지만, 총학이 강제할 수 없으며 회칙상으로도 명시돼 있지 않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음 후임이 생기면 첫 확대운영위원회 때 법인 계좌와 관련된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Q10. 취·창업 관련 공약이 다른 공약 수에 비해 적은 것이 아닌가?

취·창업 영역은 미래인재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만 학생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래인재센터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캠퍼스타운과 MOU를 맺고 인턴십을 체결하는 것을 공약으로 준비했다. 해당 공약의 일환으로 경이로운 상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학생이 포트폴리오가 제작하고 직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한 바 있다.

Q11. 총유학생회와의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는 중인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학기에는 유학생이 참여하는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Q12.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대응책이 있는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와 같이 동대문구청 등의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 특히 심리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지원센터와 미팅을 진행했다.

Q13. 연합 선본, 공동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해 양캠 총학 간의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는 중인가?

연합 선본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국제캠 총학에 미팅을 요청했지만, 국제캠 총학 측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함께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연합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화칙 개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

Q14. 한 해 동안 학생 자치를 이끌면서 학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학사와 문화 행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경희 블라썸, 2번의 축제, 해외 봉사, 농활, 줌깅 등을 기획했고 현재 총 엠티만 남은 상황이다.

Q15.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이고, 이행하지 못했던 공약 중에 다음 총학에서 이행했으면 하는 공약은 무엇인가?

학사 공약은 즉각적인 시행이 어렵고 분기별 혹은 1년 별로 바뀌는 제도가 많아 내년 초부터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이 많았다. 따라서 학사 변화가 잘 유지될 수 있게 인수인계할 예정이다. 이행하지 못한 공약은 약 4개 정도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마지막까지 시도해보려 한다. 특히, 연합 선본은 서울캠 총학과 국제캠 총학이 공동으로 인수인계해서 내년이라도 실현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